

기아, 14일 두번째 PBV ‘PV7’ 공개

유럽 등 전동화 모빌리티 시장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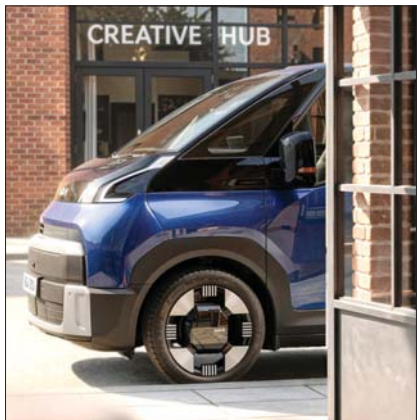
(목적기반차량)

PV5 통해 전기 밴 시장 상품성 입증
PV7, 대형 차체에 유연한 공간 갖춰
다양한 형태로 고객 요구 대응

기아의 대형 전동화 목적기반차량(PBV) ‘더 기아 PV7’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기아는 ‘PV5’의 흥행에 이어 두 번째 PBV 모델인 PV7을 유럽 시장에 선보이며 현지 전동화 모빌리티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아는 오는 14일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PV7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1531㎡ 규모의 전시관에 PV7 3대와 PV5 7대를 전시하고, 고객의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PBV 전략을 선보인다.

기아가 PV7의 첫 공개 무대로 하노버를 선택한 것은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전동화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데이터포스에 따르



기아 ‘더 기아 PV7’ 티저 이미지.

면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 경량용차 시장은 12만50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경량용차 시장이 8.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PV5가 속한 C-세그먼트 전기 밴 시장은 26.6% 성장한 4만4810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PV5는 올해 상반기 1만3603대가 판매돼 점유율 30.4%로 1위를 차지했다. 출시 1년도 되지 않은 신차가 유럽 전기 밴 시장의 선두에 올라선 셈이다.

PV5의 경쟁력은 패시저, 카고, 사시캡 등 다양한 형태로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과 상품성을 높였다.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6 세계 올해의 밴’에도 선정됐다.

기아는 PV5의 성공을 PV7으로 확대한다. 내년 유럽 출시 예정인 PV7은 E-GMP.S를 기반으로 대형 차체와 넓고 유연한 공간을 갖춰 전문 업무부터 일상 레저까지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PV7이 진입하는 유럽 미드사이즈 전기 밴 시장도 올해 상반기 5만7804대로 전년 대비 9.2%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PV5로 전기 밴 시장에서 상품성을 입증한 기아가 PV7을 통해 상용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유럽 PBV 시장에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PV5 성공을 PV7 확장’으로 이어지는 기아의 PBV 전략이 유럽 상용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과 맞물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2026 현대모비스 R&D 테크데이’ 로보틱스 핵심부품존.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미래 로보틱스’ 기술영역 확장

R&D 테크데이

로봇용 액추에이터 2종 첫 공개

현대모비스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넘어 로보틱스로 기술 영역을 확장한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고객사 수주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18일까지 경기도 용인 기술연구소에서 ‘2026 R&D 테크데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모빌리티 부품에서 미래 로보틱스로의 확장’이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전장·새시·안전 등 모빌리티 핵심부품 6개 존을 거쳐 로보틱스 부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로봇용 액추에이터 2종을 처음 공개한다.

현대모비스가 공개한 핵심 기술 중에는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가

상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음향시스템 등 인포테인먼트 기술이 눈길을 끈다. 현대모비스는 사용자 경험(UX)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꾸몄다.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이로 제품’도 공개한다. 현대모비스는 기술 경쟁력과 수주 가능성을 갖춘 10개 제품을 선정해 글로벌 주요 수주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세대 하이브리드용 배터리스истем은 파우치·각형·원통형 등 다양한 배터리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고객사의 선택 폭을 넓혔다. 수냉식과 공냉식 냉각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벤팅밸브를 적용해 안전성도 높였다.

자율주행과 주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제어도 선보인다. 기존에는 주행과 주차 제어가 각각 원거리와 근거리 인지를 담당했지만 이를 통합해 저속주행과 주차 상황에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HD현대중, SMR 주기기 공장 세운다… 1조 투자

발전엔진 생산능력 두 배 이상 확대
차세대 원전을 새로운 성장축 육성

HD현대중공업이 1조원 넘게 투입해 발전엔진 생산능력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기반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커지는 전력시장에 대응해 발전엔진과 차세대 원전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HD현대중공업은 발전엔진 신규 생산기지과 SMR 주기기 제작 전용 공장 구축에 총 1조722억원을 투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8336억원을 투입해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힘센(HIMSEN)엔진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생산 규모는 3GW다.

신규 생산기지는 약 21만5000㎡ 부지에 들어선다. 엔진 조립·시운전 공장과 크랭크샤프트 가공 공장, 엔진 블록 주조 공장 등이 조성된다. 내년 1분기 착공해 오는 2028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HD현

대는 이를 통해 연간 4GW 규모의 육상 발전엔진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산 거점도 용도별로 나눈다. HD현대중공업 울산 본공장은 선박용 힘센엔진 생산에 집중한다. 신규 공장도 전남 영암 HD현대엔진은 육상 발전용 엔진을 생산한다.

전체 힘센엔진 생산능력도 늘어난다. HD현대는 선박용과 육상용을 합쳐 현재 3GW인 생산능력을 오는 2030년 7.2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SMR 사업에는 2386억원을 투자한다. 울산조선소 내에 SMR 주기기 제작 전용 공장을 건립한다. 오는 2029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을 낮추고 주요 설비를 모듈화한 차세대 원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SMR 시장이 오는 2050년 150GW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SMR 주기기 수요 확대에 대비해 생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대는 미국 테라파워와 SMR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 겸 회장을 만났다. 양측은 차세대 SMR인 ‘나트륨(Natrium)’ 원자로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전엔진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과 8월 미국 에이페리온에너지그룹과 코반에너지그룹에서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계약 규모는 각각 6271억원과 9560억원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AI 시대 새로운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발전엔진과 SMR에 대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SK하이닉스, 작년 일 평균 17만t 용수 절감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2026’ 참가
2030년까지 6억t 수자원 절감 목표

SK하이닉스가 수자원 절감과 재이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7만톤의 용수 사용을 줄인 데 이어 2030년까지 누적 6억톤의 수자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SK하이닉스는 오는 11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2026’에 참가해 이 같은 수자원 관리

성과와 2030년까지 누적 6억톤의 수자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소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8년부터 ‘용·폐수 절감 TF’를 운영하며 생산 과정에서 물 사용을 줄이고 재이용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수자원 절감량은 3억337만 톤으로 목표치인 2억6400만 톤을 넘어섰다. 올해는 이를 3억2900만 톤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활용하는 노력도 확대하고 있다. 용수 재이용량은 2022

년 4788만 톤에서 지난해 7359만 톤으로 약 54%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취수-사용-재이용-방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수자원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폐수 처리에는 오존산화장치, 활성탄, 다단 응집·침전 시스템 등 고도처리 공정을 적용하고 추가적인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국제물주간 전시 부스를 ‘Water Loop(순환하는 물)’ 콘셉트로 구성했다. 물의 순환을 형상화한 공간에서 수자원 절감과 재이용, 생태계 보전 등 회사의 주요 물 관리 활동을 영상과 그래픽으로 소개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시스템, ‘우주 AI 솔루션’ 최초 공개

위성 촬영지역 영상 AI 실시간 분석

한화시스템이 위성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우주 AI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위성 정찰과 지상 무기체계를 연결하는 우주·지상 융합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화시스템은 9일(현지 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동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6’에서 글로벌 우주·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주 AI 솔루션을 처음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운용 중인 위성이 촬영한 동유럽 지역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시연됐다.

우주 AI 솔루션은 다양한 위성이 지상국으로 전송한 영상 데이터를 AI로 판독·분석해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자동 객체 탐지와 상황 패턴 분석, 이상 징후 감지 등을 수행해 지휘관과 사용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위성 영상 수집부터 AI 융합 분석, 의사결정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 상황에서는 적군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주요 지역의 건물과 지형 변화를 비교·분석해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데 활용된다.

전자광학(EO) 위성과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 영상의 개별 분석뿐 아니라 두 데이터를 결합한 융합 분석도 지원한다. SAR 위성은 날씨와 주·야간 조건에



김선 한화시스템 우주사업총괄이 ‘MSPO 2026’에서 글로벌 우주산업 및 방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에게 ‘우주 AI 솔루션’을 소개하는 모습.

/한화시스템

영향을 받지 않고 지상을 촬영할 수 있지만, 흑백 레이다 영상의 특성상 육안으로 객체를 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화시스템은 AI를 활용해 SAR 영상에 포착된 항공기와 선박, 차량 등을 초단위로 식별하고 영상 해상도를 높였다.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EO 위성 영상까지 결합해 SAR 영상의 판독 한계를 보완했다.

이번 솔루션은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해상도 1m·0.5m·0.25m급 소형 SAR 위성뿐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0.15m급 초저궤도(VLEO) 초고해상도(UHR) SAR 위성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한화의 타격체계 및 사격지휘체계(FDC)와 연동할 수 있는 전용 인터페이스도 구현했다. 위성으로 표적을 탐지·분석한 뒤 관련 정보를 지상 무기체계에 전달해 정찰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운용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원관희 기자 wkh@